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 전투부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탄도로케트발사장들을 돌아보시며 화력타격훈련준비정형을 직접 료해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여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탄도로케트들이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날아올라 밝아오는 동쪽하늘에 원쑤격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운 탄도로케트의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이제는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정밀 잘한다고,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



치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우리의 탄도로케트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발사된 4발의 탄도로케트들이 마치 항공교예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모양 새로 날아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하여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텁벼드는 원쑤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탄도로케트동시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식의 위력한 탄도로케트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정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있

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여 우리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현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당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멀적의 불줄기를 뿐을수 있게 기동 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빙틈없이 갖출테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화성포의

# 로성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국가방위와 평화가 있다. 자기의 본연의 사명에 맞게 인민군대는 침략세력의 도전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훈련열풍속에 조국보위의 날과 밤을 이어가고 있다.

얼마전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이 있었다. 일단 유사시 일본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들의 핵전투부취급질서와 작전수행 능력을 판정검열하는 훈련이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서 포병부대들은 능숙한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를 보여주었고 신속성과 일치성이 보장된 화력타격과 고도로 정밀한 탄도로케트의 전투적 성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탄도로케트동시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치하하면서 위력한 탄도로케트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정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련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

며 암살하기 위한 적대세력의 끊임 없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군사적 힘을 백방으로 다지는 것은 공화국의 신성한 자위적 조치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타율한 령군술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대세력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여러 차례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두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화성포병부대들의 로케트 실전운영 능력과 탄도로케트들의 전투적 성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다른 종다양의 로케트들을 보유하고 그 어떤 불의의 명령에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며 정확하고 치밀한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추고 있는 전략군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각종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이다.

그러나 어렵 없다.

인민군대의 전략군은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있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성 강화된 전략군의 섬멸의 불소나기를 피할 자세상에 없다.

그날 화성포병부대들의 발사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당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멀찍이 불줄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빙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화성포는 반공화국침략책동에 광분하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에게 종국적 파멸을 선고할 징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화성포의 퇴성에서 최후승리의 축포성을 본다.

본사기자 리설

지난 2일은 식수절이다.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소년들 할 것 없이 전체 인민이 봄철나무심기를 하였다. 각지에서 하루동안 나무를 230여만그루 심었다고 한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도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은 원아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추억으로 남을 뜻깊은 날로 되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나무심기로 들끓는 학원에서 교직원들과 원아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 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며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더욱 북돋아주는 의의 깊은 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느라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나무를 심으시려고 그곳을 찾으신 그이의 모습은 학원을 푸른숲 우거진 풍치아름다운 교정으로 만드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에게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아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고 조국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계승자, 끌간들로 자라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서 도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한그루의 나무도 소중히 여기고 땀과 지성을 바쳐 가꾸어야 한다는 숭고한 조국애와 새세대들이 앞날의 조국을 떠나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교직원들은 원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향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먼

저 물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 한 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밀거름이 되어서라도 푸른숲을 가꾸어야겠다는 의지를 안고 식수사업에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심고 가꾸는 나무들이 한뼘, 한뼘 자랄 때 원아들의 애국심도 자라게 된다고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앞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원아들과 함께 손수 나무를 심으시면서 나무는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름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식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에게 나무심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원아들과 함께 구뎅이를 파고 물을 주고 흙을 다짐하는 일을 하시며 나무를 심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살펴보시며 모두가 나무심기를 잘했다고, 어른이 되어 이곳을 찾아오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원아들 모두가 한그루 나무도 자기 살점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오늘을 추억할 줄 아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나무만 심으신 것이 아니라 원아들의 마음속에 향토애와 조국애를 심어주시였다. 새세대들을 어려서부터 조국을 알고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 사랑이 식수절 날의 학원에 비끼여 있었다.

그날은 원아들에게 있어서 나무심는 방법과 함께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여야 하는가를 배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수업의 하루였다.

본사기자 김영춘

## 뜻 깊은 식수 절 날에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

제품들마다에 달려있는 상표는 하나같이 자기가 유통

이라며 어서 오라 손님들을

부르고 있는 듯싶다.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상점에서 우리의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하기에 제품을 사가는 손

제품들마다에 달려있는 상표는 하나같이 자기가 유통

이라며 어서 오라 손님들을

부르고 있는 들판이다.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상점에서 우리의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하기에 제품을 사가는 손

의 것에 대한 찬란의 목소리가 흘러넘치고 있다.

우리의 제품들을 찾는 손

님들의 얼굴에 펴어나는 밝

은 웃음, 정녕 보다 문명해

질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약속하는 행복의 상징

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는 우리

의 제품, 우리의 상

표이다.

자기의 것이 제일

이고 자기의 것을 제일로 사

랑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아니겠

는가.

지구상에 썩어빠진 양키

식문화가 범람하고 남의

것만 넘겨다보는 수입병

이 차넘칠 때 공화국에서

는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에 넘

쳐 더 좋은 래일을 탁관하

며 생활하고 있다. 머지 않

아 세계는 자력자강의 기

치밀에 부강번영 할 공화국

의 더 좋은 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든 어린이용 가방들

##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3월초 인민군대의 예비 포병부대들에 실전배비하게 되는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 강화시켜온 걸 이 얼마나 선결지명하며 천만번 정당했는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미제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 있는 오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하는 것뿐이라고 하시며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 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 일당백의 무소철갑대으로

지난해에 있은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은 모든 땅크병부대, 구분대들을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가진 무쇠철갑대으로 만들어 기동타격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는 땅크들이 경기주로의 계선에 설비한 장애물들을 극복한 다음 이동 및 부동목표에 사격을 가하고 장애물극복운전 점수와 땅크포사격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훈련을 지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땅크전법을 연구완성하는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문

제품들마다에 달려있는 상표는 하나같이 자기가 유통이라며 어서 오라 손님들을 부르고 있는 들판이다. 우리의 제품이 우리의 상점에서 우리의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하기에는 제품을 사가는 손님들의 얼굴에 펴어나는 밝은 웃음, 정녕 보다 문명해질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약속하는 행복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는 우리의 제품, 우리의 상표이다. 자기의 것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을 제일로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지구상에 썩어빠진 양키식문화가 범람하고 남의 것만 넘겨다보는 수입병이 차넘칠 때 공화국에서는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더 좋은 래일을 탁관하며 생활하고 있다. 머지 않아 세계는 자력자강의 치밀에 부강번영 할 공화국의 더 좋은 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이 땅우에 6.15통일시대라는 환희의 시절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거대한 사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지난 2000년 6월에 있은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거기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의 발표였다. 민족분렬력사 55년만에 처음으로 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서광을 비쳐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1970년대 7.4공동성명의 발표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6.15통일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거대한 사변들을 헤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향한 큰 걸음을 내짚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북과 남사이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이 길을 따라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마음과 뜻을 합쳐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다방면 적인 대화와 접촉, 래왕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가 적지 않게 해소되고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벌어진 통일행사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우리 겨레의 단합을 굳건히 해주었다.

이 모든 사변과 성과는 바로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갈 것을 6.15공동

## 다시 찾아야 할 6.15 (1) 민족사에 획을 그은 두 차례의 평양상봉

무릇 아름다운 추억은 흘러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기쁘고 환희로웠던 그 시절이 앞날에 다시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동반하는 법이다.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북남관계가 나날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던 6.15통일시대를 강렬한 추억 속에 들이켜보고 있다.

선언발표를 통해 약속하였기 때문에 펼쳐질 수 있었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에 의해 2007년 또 다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보다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는 통일을 일일천추로 깔망하는 우리 겨레의 운명과 미래개척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반세기 이상 불신과 대결로 반목질시 하던 북과 남이 마주앉아 통일의 방향을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밝혀준데 평양상봉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향한 민족의 거세찬 진군에 겁을 겁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통일대결책동에 기를 쓰고 매달려온 남조선보수파당에 의해 6.15통일시대가 줄기차게 이어지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파당의 북남관계파국행 위가 어떤 파국적 후과를 초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6.15통일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겨레의 넋이였고 통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였으며 우리 후대들에게 밝은 래일을 약속하는 희망이였다.

지난 9년간 북남관계가 역사상 있어 본적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더욱 더 깊숙이 빠져들어온 것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다시 펼치는 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넘어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필수적요구라는 것을 우리 겨레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반통일대결의 광풍을 짓누르며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지향과 열망은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6.15는 한갓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기어이 다시 안아와야 할 초미의 문제로 되었다.

다시 찾아야 할 6.15, 그 소중한 것은 파연 무엇인가.

봉은 고사하고 의의있는 당국 대화한번 변변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모처럼 합의되었던 당국간대화도 《격》과 《급》을 결고드는 남측의 고약한 대화파괴행위로 하여 종당에는 무산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국 대화의 문을 꽁꽁 닫아매고도 모자라 민간의 래왕과 접촉, 대화의 길도 모두 막아버린 남조선의 대결 《정부》이다.

그 악몽의 9년세월 북남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란 파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 대결 《정권》은 통일의 탑을 쌓아가기는 고사하고 리명박 《정권》이 무너뜨린 그 탑을 뿌리까지 파헤쳐 들어내는 천하 못된 짓만 일삼았다.

이제 그 죄악을 모두 결산하고 반통일범죄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한다.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본사기자 리철민



## 전쟁의 굉음을 짓누르는 통일의 함성

지금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 속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과 보수파당이 벌리는 북남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에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그 준비사업에 들어갔다. 청년학생본부와 여성본부도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부문별 준비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본부와 경기도 안산본부도 전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들을 나오고 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함을 강화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회의들에서 통일운동단체들은 《국한의 행전대결시대에도 결코 대화와 교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평화시대의 힘찬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규모 문화행사와 다양한 인적교류사업을 조직하고 확대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서 전환점으로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

회 대전본부와 경기도 안산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뜻깊은 기념일들에 기념강연회와 통일마라ソン대회를 개최하여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6.15산악회는 2017년에 금강산등산을 무조건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군사분계선일대의 산들을 차례로 등산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

계층 인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높으며 《남북이 만나는 길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싸드〉 배치철회회》, 《북침전쟁연습 즉각중단》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반전, 평화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나, 예속이나 자주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는 더이상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전쟁세력에게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조기〈대선〉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계기로 만들자》, 《평화통일〈대통령〉 당선에 모든 힘을 다하자》를 2017년 투쟁구호로 정하고 제2의 6.15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펴려고 있다.

이것은 북남공동선언리행파자주통일에로 나아가는 것이 남녀의 막을수 없는 대세이며 대결과 전쟁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화해와 통일의 봄을 투쟁으로 안아오려는 겨레의 힘찬 진군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거족적인 통일대회합의 흐름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남조선단체가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부산민권련대가 5일 부산항의 미군전용부두앞에서 각계층 시민들과 함께 미제의 전쟁연습 중지, 《싸드》 배치계획 철회, 생화학무기실험실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간 충돌위험만 조성하는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 구축과 합동군사연습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들은 부산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올해에 들어와 생화학무기실험실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가동시키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평화와 안전을 넘원하는 여러 단체들파 련대하여 생화학무기실험실 가동을 중지시키고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과 합동군사연습, 《싸드》 배치,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6.15공동선언 리행하라.》,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10.4선언 실천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나왔다.

본사기자

## 남조선 《헌법재판소》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동안 재판

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 파면되었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 온 겨레가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 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성명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 세력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한결 같은 반대방적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아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근 두달동안이나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수십만의 병력과 미국본토와 팜도, 일본에 전진 배치된 지상과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된다고 한다.

침략적인 핵전쟁각본에 따라 공중과 해상으로 가증스러운 핵전략 폭격기와 스트리밍기들, 핵항공모함들이 조선반도를 향해 폐를 지어 쓸어들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내외여론을 기만하며 《년례적》이나, 《방어적》이니 하던 상투적인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핵전쟁연습이 북침을 겨냥한 선제공격연습이라는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벌어지고있는 이 엄중한 사태는 매해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고 그 성격과 목적,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소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국강토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용납 못할 전쟁도발범죄로 라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온갖 부정협집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4년간 저지른 극악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 악정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침전쟁도발에서 찾으려고 발광하고 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과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무도한 사대대국세력의 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는것이 해내외 온 겨레의 분노 한 웨침이다.

범민련은 얼마전 제17차 공동의 장단회의에서 민족앞에 선언한대로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반대하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북침전쟁연습에 날뛰는 미군땅

크와 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섰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수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이와 함께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더욱 굳게 손잡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군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주적인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최후발악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이 땅우에 전쟁이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는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놓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반미결사항전의지를 뚜바로 보고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걸어가지고 하루속히 물리어야 한다.

범민련은 이 기회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7일 평양, 서울, 도쿄

##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장본인

-조국통일연구원 참사와 기자가 나눈 대담-

기자: 지금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참사: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평년에 비해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 북침전쟁연습이다.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를 연습에 참가시키기로 한 미국은 강습상륙함 《본홈 카드》호,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호 등 상륙함들과 수직리착륙수송기 《MV-22오스프리》를 조선반도주변수역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으며 스트리밍기들 《F-35B》도 공화국의 핵심시설을 노린 선제타격훈련에 동원되었다. 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에서 대규모 련합상륙훈련, 련합항공모함강습단훈련, 련합공군훈련, 합동군수지원훈련 등 각종 훈련을 벌리려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에서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5015》를 구체화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 있다.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무력수나 무장장비, 훈련내용으로 볼 때 응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으며 방어가 아니라 명백히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년례적》이며 《방어적》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외피미처 벗어던지고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로골적으로 엄중히 위협하

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기자: 결국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도발》이니, 《위협》이니 떠들어대지만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라는것이 이번 전쟁연습소동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 고 본다.

참사: 그렇다. 남조선에서 강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단순히 공화국만을 겨냥한것으로만 볼수 없다.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미국의 핵전략타격수단들이 다 동원되는 이번 연습이 동북아시아지역을 군사적으로 더욱 지배하는 미국의 전략파도로 펼쳐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령역을 훨씬 지난 주변 나라들에까지 사거리가 미친다. 고고도로 침투하는 《B-52H》핵전략폭격기나 최대항속거리가 1만km이 상인 《B-2A》전략폭격기만 보아도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주변지역나라들에도 은밀히 침투하여 불의에 기습타격 할수 있는 핵선제타격수단들이다.

주변국들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에 강경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는 것도 탐지반경이 수천km에 달하는 《싸드》가 주변국들의 안전을 침해하고 아시아지역의 전략적균형을 심히 파괴할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나라의 군사전문가들이 남조선의 《모순된 정책이 조선반도를 화약고로 전락시켰다.》, 《〈싸

드〉 배치와 〈한〉 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번 불장난소동을 통해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장본인이라는것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기자: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분별없이 날뛰어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하지 않는가.

참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걸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도 적극 기여하려는것은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핵화약고나 다른 위험지대로 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핵무력을 종주로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험에 대처한 초강경대응조치의 일환이다.

평화는 오직 총대로써만 수호할수 있다.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고와서 핵전쟁연습을 벌리여도 정의의 핵억제력을 억세계에 틀어친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수 없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게 될것이다.

## 어리석은 자살적망동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려놓으면서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수십대의 전투기,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을 실은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파견하고 강습상륙함, 상륙수송함 등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었다. 또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F-35B》스텔스전투기편대도 이번 전쟁연습에 끌어들여 공화국의 수뇌부를 노린 선제타격훈련을 벌리려 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팜도에 전략폭격기 《B-1B》 8대를 순환배치하였으며 남조선 각지의 미군기지들에 수천여명 규모의 상륙대대들도 분산개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소동에서 호전광들은 탐지, 교란, 파괴, 방어로 이루어진 《4D작전》을 포함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를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실행해보려고 하고 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첨단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발책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어리석은 객기이다.

좁은 지역에 군사력이 밀집되어있고 자그마한 총돌로도 전면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화약고나 다른 조선반도에서 《선제타격》 놀음이 초래 할 엄중한 재난적후파는 더 말할것도 없다.

미국은 지난 시기 그 무슨 《외파수술식타격》이니 뭐니 하며 《선제타격》 각본을 탁상우에 올려놓고 실

행해보려고 여러번이나 시도해보았지만 매번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였다. 공화국의 군사적위력과 무서운 타격력때문에 《선제타격》이 오히려 저들에게 과국적인 재난을 안오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도 이루지 못한 《선제타격》 기도를 공화국이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아오른 오늘날 행동에 옮겨보겠다는것이야말로 제스스로 악동의 핵버섯구름을 머리에 쓰겠다는것이나 같은 어리석은 자살적망동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미 공화국은 우리의 자주권과 영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소한 도발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원쑤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씨도 없이 죽탕처벌 멸적의 의지를 명백히 천명하였다. 며칠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도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정의의 핵공격이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적대세력들의 가소로운 군사적광기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모든 작전집단들은 적들이 움직하면 그 즉시 무자비한 심멸적타격을 가할 만단의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침략기도가 판단되는 즉시 침략작전에 투입된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소탕해버리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억세게 틀어친 공화국의 힘을 뚜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할것이다.

김철민

##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또다시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공화국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강행해나섰다는 소식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못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

적들이 《년례》와 《방어》를 떠드는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망동이다.

만일 내외호전광들이 제죽을 줄 모르고 설쳐댄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호전광들이 죽어서도 묻힐곳이 없게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강도 통일군인민위원회 부부장 리계춘

## 징벌의 총대를 잡겠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끌끌내 벌려놓은 엄중한 사태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침략자들이 전쟁의 불뭉치를 들고 달려드는 지금 교정에 가

만히 앉아 책만 볼수 없다는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대학공부도 조국을 위해 서인데 날강도무리들이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퍼끓는 청춘들이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겠는가.

나는 제대군인대학생이다. 보람찬 명사시절 나는 총대의 귀중함을 사무치게 절감했고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이 한몸 다 바치리라 굳게 마음 다지고 또 다지였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조국강토를 어찌보려든다면 펜대를 쥐였던 이 손에 총과 폭탄을 들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용약 떨쳐나 침략의 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요정내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겠다.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한광진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립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박근혜는 죽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마 천하악녀라는 그 오욕의 대명사일 것이다. 그리고 남길 것이 또 하나 있다. 악녀가 내뱉은 기이한 말들, 만인이 경악하며 치를 떤 무수한 망언들이 또한 그것이다.

원래 속이 뒤틀리고 라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찬 악녀의 입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그가 늘어놓은 말은 하나에서 열까지 궤변의 극치였고 망언의 절정이였다.

이 세상에 망언집이라는것이 있다면 아마 박근혜의 망언이 단연 첫 자리에 오를것이다.

악녀가 집권 수년간 창조해낸 기이한 망언들중 몇가지만 되새겨보자.

-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

2013년 3월 19일 종교인들과의 면담에서 박근혜가 내뱉은 말이다.

북핵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이따위 소리를 쳐쳤는지, 아마 북핵이 없었으면 이 땅은 전쟁판이 되고 박근혜는 저승에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민족을 지켜주는 동족의 핵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미국의 핵은 운명의 구세주나 되는듯이 환영하고 반겨맞은 박근혜이다. 그가 집권한 수년간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는 한발만 터져도 모두를 재가루로 만들 미국의 핵이 항시적으로 떠있었다. 지어 북남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던 그 시각에 조차 미국의 핵폭격기가 직도상공에 떠있으면서 북의 종심을 헤타격하는 연습을 해대는 지경이었다.

입만 터지면 그 누구의 『핵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지껄인 박근혜가 실은 남조선을 최대의 핵위험지대로 만들어온 것이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4년 3월 유럽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박근혜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잡소리로 세인을 깜짝 놀래웠다.

## 만인을 경악케 한 악녀의 망언들

핵무기없던 세상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게 누구인데? 그 핵무기로 수십만의 인명을 살상하고 지금도 침략과 살인을 밥먹듯하는 나라가 누구인데?

침략과 살인의 미국핵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도 핵문제가 해당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도의 궤변은 양이 없어져야 동산의 승냥이가 마음놓고 산다는 격의 뒤집어진 말, 기이한 넉두리였다. 친미굴종에 너무도 환장하여 세상의 리치도 거꾸로 해석하는 악녀다운 말이였다.

-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 드디어 쓰러지게 될 때 100번의 노력은 무의미한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지난해 1월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마주한 자리에서도 제 망신인줄 모르고 나불거렸다.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뼈를 부순다는 생각에 움했던지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여 악을 쓰며 혀바닥도끼질을 해댔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박근혜의 체질화된 동족대결기질은 바다건너 동네방네를 들락날락하면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바 말 다르고 풍속다른 남의 땅에서 그 무슨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먹히우고 먹어버린』 통일을 조선반도의 『통일』로 이어나갈것이라는 해괴한 망발을 쳐쳐대였다.

그런다고 지심깊이 뿌리내린 억센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랴. 101번이 아니라 천번, 만번 찍어도 끔찍 안하고 천하강국으로 우뚝 치솟을 공화국이다. 모자라는 박근혜는 남을 찍어 넘기려다가 그 도끼에 제가 맞아 평생성이 되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것을 두고 남잡이가 제잡이라 한다.

-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가 내뱉은 유명한 이

날말, 그것은 악녀의 천박한 통일관점, 대결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망언이다. 선무당 최순실의 말을 듣고 복이 인자망하는가 하여 역도년이 이렇게 쭈쳐댈 때 북남관계는 더 짹막혀가고 통일은 더욱 멀어져만 갔다.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야 통일이 오는데 동족과 시종일관 담을 쌓고 대결만을 일삼았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 리명박의 『통일항아리』에 거미줄이 쓰였듯이 박근혜의 『대박』 타령은 『쪽박』이 되고 『싸드대박』, 『전쟁대박』이 되고 말았다.

- 『북주민여러분, 자유로운 러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군사분계선 상에서 확성기로 불어대는 방송원의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병거지를 쓰고있던 박근혜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데서 지껄인 망발이다.

머리가 돌아도 이렇게 돈 머리가 또 있을가. 자주의 불모지, 인권말살지가 어디인데 누가 누구보고 어디로 오라는것인가. 자주와 존엄에 살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가하는 북녘인민들이 백성이 『개, 돼지』로 천대받고 『망한민국』이라며 저저마다 탈출하는 남녘의 살인지옥으로 오라고 하였은즉 남녘의 각계가 『섬씩하다.』, 『대통령의 머리가 한참 돌았다.』, 『오히려 〈주민여러분, 참다운 인간세상인 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야 제격이였을것』이라고 조소와 비난을 퍼부은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 『청년들은 이 땅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진출하라.』

이것은 『국민행복시대』니, 『청년일자리창출』이니 뛰어나는 기만적인 광고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오히려 남조선을 청년실업왕국,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가 뱀뱀스럽게 내뱉은 말이다.

남조선에서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박근혜집권시기에 더욱 죄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비판과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사랑, 결혼, 해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회망모두를 포기한다는 『7포세대』에 이어 삶자체를 포기한다는 『삶포세대』까지 생겨났다.

남조선을 이런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는 오히려 제편에서 『국민이 폐배주의에 빠졌다.』고 쭈쳐대며 『중동에는 일자리가 많으니 거기에 가라.』, 『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중동에 갔다고 하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때 제 애비가 광부, 간호원들을 도이췰란드에 대대적으로 이민보내 눈물의 력사를 쓴것처럼 제년도 청년들을 중동에 내보내 새로운 이민사를 꾸며내려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 빠지면 남조선은 미래없는 땅으로 더욱 전락한다는것을 모르는가. 박근혜의 아둔하고 저능아적인 사고수준이 각계의 말밥에 오른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역도가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이산화탄소』를 『산소가스』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낸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를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 『수첩이 없으면 어버이 어버이 하는 무식쟁이』로 놀려주면서 『저런 입을 쳐다보아야 하는 민중이 정말 불쌍하다.』고 개탄하였겠는가.

- 『최순실사태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다.』

특대형 정치추문사건의 소용돌이속에서 양버티던 박근혜는 거짓말의 능수이며 말 뒤집기 선수인 자기의 실력을 올리자마자 청년들은 더욱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역도는 그로 인한 징벌의 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었다.

온 남녀가 수년세월 비분에 떨며 진실과 책임자처벌을 바라건만 박근혜는 아직도 한조박의 죄의식조차 못느끼고 떨쳤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였다. 원래 시작부터 기만과 협잡, 부정의 방법으로 『정권』을 친 박근혜의 4년세월이 애당초 진실할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국민행복시대』니 『일자리창출』이니 하는 거짓공약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친재벌, 반인민적 악정으로 『헬조선』을 산생시킨 최대협집군이 거짓을 룬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였다.

철면피한 박근혜의 뇌까림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이 노성을 터쳤었다. 『온갖 거짓이 이남땅을 통채로 훑쓸고있다.』, 『박근혜의 언행에서 거짓파진실은 어데서부터 어데까지인가.』, 『박근혜 『정권』 자체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다.』라고.

- 『피눈물이 난다는것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야 어떤 말인지 알겠다.』

『국회』에서의 탄핵안가결을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는 『국무회의』라는데서 닦동같은 눈물을 몇방울로 동정을 구하려고 애쓰며 또 이렇게 종알거렸다.

『피눈물이 난다.』고? 뭐가 슬퍼서? 탄핵소추가 원통하다는건가?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시원치 않을판에…

붙는 불에 키질이라고 격노한 남녘민심이 또 한번 세차게 들끓었다. 민중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항변이 비발쳤다.

\* \* \*

박근혜가 한 이 몇가지 망언들을 통해서도 악녀의 추악한 본성, 정체가 날날이 드러난다. 하는 말마다가 세상 어디 가서 들을수도 없는 진짜 악녀다운 말들이다. 지은 죄도 산같이 크지만 남긴 말도 이처럼 망언만을 늘어놓은 천하악녀 박근혜.

인간말종인 역도는 저승에 가서도 두고두고 뭇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될것이다.

아마 무덤속에 들어가서도 마음편한 날이 영원히 없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만고역적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특대형 추문사건을 수사해온 남조선의 특별검사팀이 얼마 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이 박근혜가 추악한 범죄자임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우선 박근혜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인 요시찰명단』 작성지시와 작성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요시찰명단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문화체육관광부 1급실장들에 대한 사직강요 등 의혹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범죄혐의는 원래 검찰이 특검에 넘긴 8개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의료법위반 등 5개가 더 해졌다.

특검은 이른바 『〈세월〉 호 7시간의혹』은 명백히 하지 못했지만 여러 외부인물들이 최순실의 소개로 청와대로 드나들며 박근혜를 치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순실이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는것과 그로 하여 불순한 정경유착이 이루어진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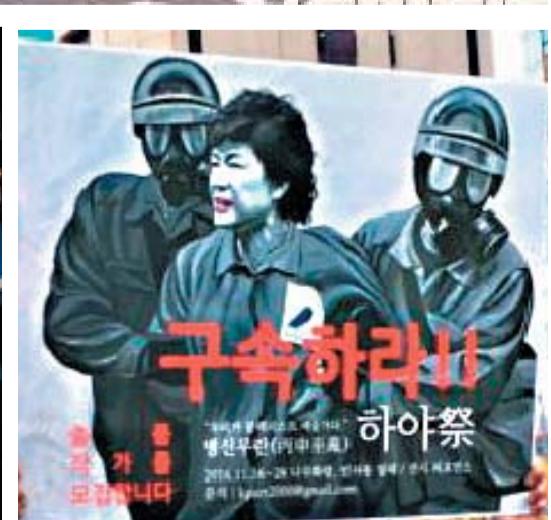
특검은 이에 대해 『리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수사과정에서 『대통령』 뇌물수수혐의를 확인했다.』며 『최순실과 공모해 리재용의 승계작업 등 현안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하였다.

특검에 의하여 밝혀진 범죄의혹들에 의하더라도 박근혜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상최악의 범죄자이다.

특검이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들이 박근혜가 권력을 악용하여 자기 하나님을 위한 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악녀임을 힘껏 해주고 있다.

남조선 사회 각계가 『특검수사결과로 박근혜 탄핵인용은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주장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언젠가 한 정치인이 박근혜의 탄핵사유중에 하나만 확인되어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한적이 있다.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싸드』의 남조선배치에 협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지금 남조선 보수당국은 『싸드』 배치지로 정한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경비병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봉쇄하고 공사자재와 장비들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싸드』 부지를 남조선 강점 미군에 넘겨주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서 기지건설이 채 끝나지 못해도 1~2개월 안으로 『싸드』를 배치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남조선을 끌끌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을 위한 영구적인 핵전쟁 전초기지로, 대국들의 전쟁망,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살인기지로 전락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 전쟁머슴군의 비굴한 추태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한사코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겨냥한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에 남조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다.

『싸드』의 기술적 특성상 작전반경이 조선반도 경외를 훨씬 벗어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 고도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다. 『싸드』는 대륙간 탄도미싸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로서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X대역 레이다의 탐지거리는 수천km에 달한다.

남조선에 『싸드』가 배치되면 주변 나라들의 핵미싸일들이 미국의 항시적인 감시망에 들게 되며 이로 인해 이 나라들의 안전이 심히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

실로 되고 있다. 주변 나라들이 『싸드』의 남조선 배치를 강력히 반대 배격하는 것도 우연한 것 이 아니다.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실현에 박차를 가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책은 더 한층 무분별해질 것이다. 이것은 주변 나라들의 대응을 촉발시켜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이 증대되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의 무모한 침략 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싸드』가 배치된 남조선은 주변 나라들의 1차적인 핵공격 대상으로 되어 바라지 않는 핵 참화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물론 주변 나라들도 남조선 보수당국의 『싸드』 배치책동에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응조치를 취

하고 있다.

심각한 궁지에 빠져들게 된 남조선 당국은 『〈싸드〉 배치는 북의 미싸일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인 방어조치』라고 공화국을 결고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안보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약을 쓰고 있다.

공화국의 최첨단 탄도로켓들의 위력 앞에서는 미국의 그 어떤 오격 체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싸드』 배치가 『북의 미싸일 위협』에 대한 『안보조치』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궤변이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싸드〉는 북미싸일 방어에 효용이 없으며 미국이 자신들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 도입한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높아가는 항의와 반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한사코 『싸드』의 초기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는 현 보수 『정권』이 파멸되고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싸드』를 전개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흥계가 깊숙이 깔려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싸드』 배치 문제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남조선 보수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싸드』 배치 강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지공사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6일 2기의 『싸드』 발사대와 일부 관련 장비들을 서둘러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반입한 사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 또한 상전

의 압력과 부추김에 맹종하면서 『싸드』 배치를 다그치려 하고 있다. 미일 상전들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강화하여 북침 앙장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 보려는 역적 폐당의 이러한 망동은 스스로 셀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 행위이며 민족을 열핵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이다.

남조선 보수당이 미국의 전쟁 하수인이 되어 침략적인 『싸드』 배치책동에 광분할 수록 내외의 더욱 강한 항의 규탄과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미국 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망동은 제손으로 저들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 이 없다.

본사기자 현은경



## 초상난집의 멍멍이들

미친개는 맞아죽는 순간까지 짖어대며 사람을 물려고 날뛴다.

박근혜 탄핵 사태로 총체적 붕괴 상태에 처한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족 대결책 동을 유지해보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그 무슨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니, 『북의 핵, 미싸일 위협』에 대비한 『련합방위 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니, 『싸드』 배치니를 퀘치면서 미국 상전들에게 바싹 달라붙어 발비 닥을 훑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그런가하면 통일부 장관 홍용표라는 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느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떠벌었다.

집안에서 짖어대는 멍멍이들은 그런다 치고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눈 온 날 개싸다니 들통 돌아치며 『북핵, 미싸일』 문제, 『북인권』 문제를 짖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생화학무기 협정』까지 궁냥해냈다.

『구걸외교』, 『동양외교』, 『거지외교』에 이끌리나 아예 『게걸외교』를 해보자는 판이다.

하기는 파기 동족 대결과 친미 사대에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들이어서 청와대 너 주인에게 『입양』 되었고 박근혜에게 배운 것 또한

초상난 집의 멍멍이들이 짖어다면 댈수록 궁상을 더해줄 뿐이고 그 소리는 종말의 비명으로 끝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남조선의 평화미국원정단 백악관 앞에서 반전시위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이 구성한 평화미국원정단이 미국에서 반전 평화 시위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원정단은 백악관 앞에서 반전 평화 시위를 벌리였다.

참가자들은 『미군 기지 환수!』, 『〈싸드〉 배치 반대!』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미국의 북침 전쟁 연습책동을 단죄하였으며 특대형 부정 추문사

건의 주범인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폭로하였다.

원정단의 시위 투쟁을 지켜보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싸드〉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원정단의 구호에 동의한다』, 『〈싸드〉 배치는 옳지 않다』고 하면서 시위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현대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한해가 시작되던 지난 1월 남조선의 언론들은 2017년을 『최악의 경제 위기의 해』라고 전망하면서 『2017년 남조선 경제 앞에는 온통 지뢰밭뿐이다』, 『내우외환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남조선 경제가 최악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그것을 증명하듯 남조선에서 얼마 전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대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9만 여개의 중소기업들도 파산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주변 나라들이 박근혜 폐당의 『싸드』 배치 결정에 대응하여 남조선 주요 상품들에 대한 수입제한과 불매 등 각종 경제 보복 조치

들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미국이 오는 4월 남조선을 『환률 조작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조선 경제는 그야말로 지금 가파로운 낭떠러지 위에 섰다고 말할 수 있다. 남조선 내부에서는 『잔인한 4월 경제 위기설』 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절벽에 선 것은 경제 만이 아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의 편이은 파산 몰락으로 남조선에서 실업자와 『가계 부채』가 력대 최악의 수준으로 증가하여 민생에도 커다란 후파를 미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지난 4년간 실업자 수가 16.4% 늘어난 450여 만명에 이르고 반실업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하였고 종 산층이 빈곤층으로 주저앉은 속에 『가계 부채』가 무려 39.8%나 증가하여 『신용 불량 사태』, 『금융 대란』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높은 물가와 실업, 최악의 위기에 몰린 민생, 그 속에서 절망과 공포에 잠긴 기업들과 가정들, 사람들. 정말이지 모두가 절벽 끝에 섰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날이 막막하다』, 『한스럽고 원통하다』. 생애 대한 비판과 혼란감에 잠긴 민심의 통곡 소리가 귀전을 에이고 있다.

파연 누가 사람들을 이런 절벽 끝으로 내몰았는가.

분노한 민심의 저주가 그대로 박근혜에게로 쏠린 것이다.

남조선에 최악의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을 몰아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층의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의 집권 4년간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는 것이란 하나도 없어 『국정』도 한갓 선무당에 의거해서 운영해온 박근혜의 부패 무능, 『공기업 민영화』, 『로동 시장 개혁』을 비롯한 대기업 위주의 반인민 적 정책, 『싸드』 배치와 같은 친미 굴종 행위, 이 모든 것이 남조선 경제를 더욱 침략하게 만들고 최악의 『국민 고통 시대』, 『국민 절망 시대』를 불러왔다. 남조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민생을 파탄시킨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뻔뻔스럽게 돌아대었다.

얼마 전 『헌법 재판소』에 낸 『의견서』에도 쓴 것처럼 최순실의 청탁으로 일부 기업들에게 특혜를 보장해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된 후 형세 한 기업이나 어렵고 힘든 계층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느니, 중소기업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쟁여주는 것이 『옳바른 국정』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으로 실현시켜주도록 지시했던 것이라느니 하고 구구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다면 박근혜가 개성 공업지구를 한순간에 폐쇄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 몰락시키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킨 것도 형세 한 기업이나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서인가. 개성 공업지구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며 박근혜에 대한 저주로 이를 치고 있다.

박근혜가 오만가지 요술을 펴워도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파탄에로 내몬 책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경제 위기의 진앙지는 박근혜』라고 강하게 단죄하고 있고 분노한 민심의 화살이 자기들을 생의 막바지, 절벽 끝으로 내몬 박근혜를 향해 사정 없이 날아가고 있다.

인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남조선 민심의 강렬한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어서 오라 부르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풍라곱등어관, 조교사들의 손동작과 호각소리에 맞추어 기묘한 재주를 부리는 풍등어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손님들을 환영하는 지느러미기교, 집체조하여 높이 매달린 공을 주동으로 치는 기교, 원을 그리며 물결을 헤가르는 기교, 여러가지 장단에 맞추어 꼬리로 장단을 치는 기교, 조교사와 함께 잠수도하고 여러가지 룰동을 펼쳐보이는 기교 등 풍등어들의 신기한 재주를 보며 관람자들은 연방 웃음을 터치고 있다.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물개들의 다양

한 기교동작들 또한 불만하다.

이것이 어찌 풍라곱등어관에만 펼쳐진 화폭이라.

현대적으로 멋들어지게 개진된 중앙동물원에서도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줄수 있게 각이한 동물들의 여러가지 재주들을 훌륭히 완성하고 손님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 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어도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문수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매일과 같이 흥성이 고있다.

물미끄럼대들에서 좋아라 팔을 저으며 미끄러져 내리는 사람들, 파도물놀이장에서 세찬 물결을 헤가르기도 하고 수영수조들을 오가며 혜염을 치는 청춘남녀들, 아동수조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노는 아이들… 그 누구를 보아

도 희열과 랑만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문수물놀이장을 기쁨과 웃음 파도처럼 설레이는 물의 락원, 물의 궁전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오면 하루가 너무도 짧다고 이야기하군 한다.

그뿐이 아니다. 미림승마구락부, 풍라립체풀동영화관,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그 어디서나 희열과 기쁨에 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가는 곳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문화휴식터들에서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공화국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얼마전 풍라곱등어관을 찾은 한 외국인은 풍등어들의 갖가지 재주를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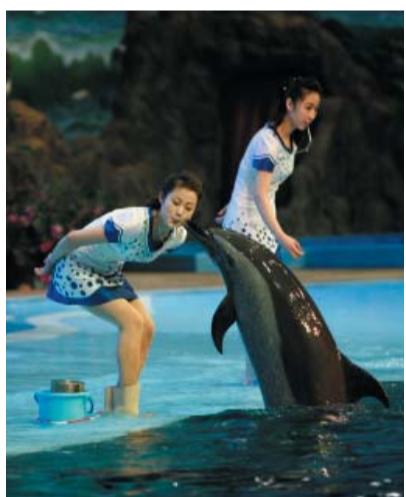
『조선에서는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고급한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 있으니 정말 놀랍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문수물놀이장을 찾은 한 해외동포도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국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 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한갓 꿈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희한한 현실이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행복한 생활로, 너무도 평범하고 평범하게 헤어가는 생활의 한 단면으로 되고 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숭고한 세계에 떠받들려 도처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어제도 오늘도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 매화 한 그루 (6)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했거늘 남의 사정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따위 몹쓸 수작을 꺼리낌없이 내뱉아?! 저런 작자를 믿고 온 내가 어리석었지.

분하고 창피한 마음을 더는 주체하기 어려워 획돌아서는 그앞에 민씨가 먼저 받은 돈궤미를 그대로 던져주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또 다시 나타난 김홍도를 보았을 때 민씨의 입에서는 『아니니, 거기선 또 왜?』 하고 놀라운 소리가 뛰어나왔다.

『집의 매화를 그리려고 왔소.』 『매화를 그리다니?! 그건 무슨 …』

김홍도는 대꾸를 하지 않고 매화화분앞에 들고온 보통이를 헤친 다음 여리여리지 봇과 색감그릇들 그리고 서너자자리 명주천을 꺼내놓았다.

그는 지난 밤새껏 생각이 많았었다. 매화를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한탓 때문이었다.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매화를 몹시도 사랑하였기에 그토록 훌륭한 매화를 제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왔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어찌그리지 않으랴.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히 매화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닌 화공으로서의 리념이라고 할가, 어쨌든 그런것이 바탕으로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매화를 애지중지하며 즐기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화폭에 그대로 옮겨 아름다운 매화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화공의 본성이었다.

살아있는 꽃은 몇 날 가지 못하고 시들고만다. 하기에 『화무십일홍』(열흘붉은 꽃 없다.)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즉 그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제철에 몇몇 사람이나 보다가 말라고 내버려두는것은 진실한 화공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화폭에 옮겨 후대들이 대를 이어 보게 만들어야 한다. …

김홍도가 한창 봇바람을 날리고 있을즈음 꽃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전날처럼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들은 커다란 홍미를 가지고 김홍도의 뒷골에서 태여나는 꽃송이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마치도 생화가 아니라 그림그리기를 보려 온듯싶었다.

이때였다. 새로 들어온 어떤 사람 하나가 김홍도를 보더니 큰소리로 웨쳐대는것이었다.

『아니니, 단원선생이

살아있는 꽃은 몇 날 가지 못하고 시들고만다. 하기에 『화무십일홍』(열흘붉은 꽃 없다.)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즉 그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제철에 몇몇 사람이나 보다가 말라고 내버려두는것은 진실한 화공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을 화폭에 옮겨 후대들이 대를 이어 보게 만들어야 한다. …

김홍도가 한창 봇바람을 날리고 있을즈음 꽃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전날처럼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들은 커다란 홍미를 가지고 김홍도의 뒷골에서 태여나는 꽃송이들을 열심히

아니시오?! 원 이런데

사람들의 눈길이 김홍도에게 집중되었다. 장안일대에 김홍도의 낯을 아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지만

## 호평받는 명제품, 명상품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김치제

품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통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백김치, 석박김치, 어린이영양김치, 깍두기 등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독특한 그 맛을 좀처럼 잊지 못해하고 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1동에 살고있는 리영숙녀성은 『내 담근 김치가 맛있기로 동네에 소문이나 김치 담그는데서는 그래도 내가 〈선생〉이라고 은근히 자부했었는데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맛보고는 그만 두손을 들고말았다. 시원하고 짭한 향기,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류경김치공장의 제품들에 나부터가 훌딱 반해버렸다.』고 말하였다.

중앙은행에 다니는 김경숙녀성도 집식구들이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 하기에 퇴근할 때마다 꼭꼭 사자하고 가군한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드는 갖가지 제품들이 운데서도 특히 통배추김치는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통배추와 무우, 마늘, 생강, 양파, 고추가루, 사탕가루, 명태를 가지고 만드는 통배추김치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비타민들과 필수아미노산, 미량원소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있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찾고 있다.

이곳 공장에서 다 자라지 못한 작은 무우를 잎이 불은채로 절구어 담근 총각김치와 고추김치를 맛보았는 그만 두손을 들고말았다. 시원하고 짭한 향기,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류경김치공장의 제품들에 나부터가 훌딱 반해버렸다.』고 말하였다.

중央은행에 다니는 김경숙녀성도 집식구들이 류경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 하기에 퇴근할 때마다 꼭꼭 사자하고 가군한다고 웃으며

강화제 등을 배합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적 및 육체적 발달수준과 영양학적 요구에 맞게 만든 어린이영양김치들도 얘기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류별나게 새빨간 것으로 하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한 깍두기는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냄새가 향기로와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월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의 향취 넘치는 갖가지 김치와 장절임들을 꽁꽁 생산하고 있다.

본사기자



한 선비가 삼촌과 함께 을 먹이였다.

자주 말을 타고 서울로 오 가군하였다.

삼촌의 말은 겸

으나 이마가 희고

조카의 말은 전부

검었다.

삼촌은 유흥이

많은지라 매일 밤마다 조

은 말이마에는 흰종이

카의 말은 기둥에 동여매

를 불이고 삼촌 말의 이

놓고 자기 말에 다만 여물

마에는 검은 종이로 가

리웠다.

그것을 알게 된 조카

가 슬그머니 자기의 검

는 삼촌은 자기 말은 기

등에 매여놓고 조카

의 말만 여물을 먹

였다.

삼촌은 자기 말이

수척해가고 잘 걷지

못하는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조카한테 속은것

을 알았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예로부터 문명한 우리 사람들은 그림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해왔다. 하기에도 명화공, 그것도 자기들의 소박한 생활을 꾸밈이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

어져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웠다. 한것은 갑자기 집주인인 민씨가 김홍도 앞에 끓어았으며 『단원선생, 선생을 몰라보고 언감생심 불손한 행위를 꺼림없이 저지른 이 미련한 너석을 꾸짖어주시오. 난 그저 꽃을 좋아하는 범여쟁이 행세군인줄 알고 그만…』 하며 잘못을 빌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눈이 등그레져서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어찌된 영문인가를 다투어 물자 민씨는 어제 자기와 김홍도사이에 있었던 사연을 다털어놓았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떠들썩 들끓었다. 민씨앞에는 잠간 사이에 염전이 무드기 쌍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민씨는 기가 죽어 어쩔줄 몰라 멍청히 앉아만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서 먼저 김홍도를 알아본 사람을 길잡이로 화분을 김홍도의 집으로 옮겨갔다.

《내 오래전부터 명화공 단원선생이 인정이 깊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알고보니 정말이였군 그레!》

《단원선생은 인정이 뜨겁기에 인간생활을 그리도 감명깊게 그린다고 함



게 그리는 김홍도를 봅시

도 존경해왔다. 그런데 이

름만 알면서 그토록 존경해온 그 김홍도를 여기서 보게 될줄이야.

이때에 뜻밖의 일이 벌